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박용주 사무관 이준재 042-481-5070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협력 강화하기로

- 청장회담에서 ‘협력체계’ 채택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도 공동 모색기로 -

성윤모 특허청장은 12월 6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셴창위(申長雨; S HEN Changyu) 중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宗像直子; MUNAK ATA Naoko) 일본 특허청 장관과 함께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29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고 한·중·일 간 지식재산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특허청의 새로운 ‘협력체계(cooperation framework)’가 1년여의 논의 끝에 채택됐다. ‘협력체계’는 3국 특허청간 협력의 범위와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형식이 문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3국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재산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해나가고, 한·중·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향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3국 특허청은 급변하고 있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그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논의 진전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청장회담에서 3국 특허청이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고, 3국 지재산 협력의 정체성 또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침내 ‘협력체계’가 채택됐고 ‘협력방향 설정 추진’에 대한 합의도 도출됐다.

※ 한·중·일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56%, 디자인 출원의 76%를 차지

한편, 처음으로 ‘트리포(TRIPO)’라는 한·중·일 3국 특허청 협력체의 명칭이 사용된 이번 청장회담에서 ‘트리포’ 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엠블럼도 채택됐다.

성윤모 청장은 “특허제도 도입과 발전은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이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아시아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한·중·일 3국 특허청이 새로운 협력체계를 채택하고 신(新) 협력방향 모색에도 합의한 것은, 지식재산 분야의 3국간 협력을 미래로 이끄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한·일 청장회담에서 양국은 인공지능의 특허행정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범위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계속 증가하는 세계 지식재산 출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구체적인 공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7일(목) 오후에는 제주시 메종 글래드 호텔에서 3국 특허청장과 지식재산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출원인, 교수, 변리업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3국의 지재산 전략’을 주제로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이 개최된다.